

전문가 윤리강령에 관한 소고

-개신교 목회자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Code of Professional Ethics

오 필 환(Oh, Phil H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necessities of professional ethics, especially for the ministers of protestant churches who guide the spiritual life of church members. I tried to mention about problems of recent Korean Protestant churches and ministers of the churches. To correct the distorted problems of churches, strict professional ethics of ministers should be made by the diverse members and strongly requested to be practiced in ministering process.

Key words : 전문가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ethics),
목회자 윤리강령(code of minister's professional ethics), 윤리강령(code of ethics)

1. 전문가로서 목회자 윤리강령 개요

1. 전문가 윤리강령과 목회자 윤리강령이란?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 지식과 위치와 권한으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행하는 윤리적 측면을 전문가 윤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히포크라테스 선언으로 대변되는 의사들의 윤리강령을 비롯하여, 공직자 윤리강령, 교육자들의 윤리 강령 등 전문 직종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필요한 윤리기준이 명기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도덕적 윤리는 사회적 책임과 전문가로서 선택된 직업적 소명과 직업을 통한 사회의 영향, 그리고 자기통제,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므로 일반 직업인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직업적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¹⁾ 또한, 전문가들은 인류의 건강이나 생명, 영적인 세계, 인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결정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감당한다. 특히, 성직자로 구분되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지도하며, 정신적이면서 교육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1) V.I. Bakshtanovskii and Iu. V. Sogomonov, "Professional ethics: Sociological perspective, Sociological Research, 46(1), 2007, pp.75-95

전문인으로서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 모든 행위에 대한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의 행위의 비윤리성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목회자의 윤리강령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목회자 윤리강령이란 개신교 목회자가 개인적 삶의 윤리적 기준과, 동료와 교인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목회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윤리적 행위의 준거를 제시하는 강령으로서, 규약이나 서약의 형태를 가진 명문화된 규범이다. 그러므로 목회자 윤리강령은 사회적 법규와 질서를 넘어서 목회라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성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며, 목회를 위한 전문인으로서 윤리적 판단의 준거가 될 지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은 다른 전문인 윤리강령과는 구별되게,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기반위에 현실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 단순한 도덕적 준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상을 표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 윤리 강령의 수위는 어느 정도 이어야 할 것인가는 지나치게 일반적 수준이면, 실행의 가능성은 높으나 너무나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고, 너무 요구수준이 높으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행가능성과 목표성을 잘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강령은 개인의 생각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것으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수년간의 토의를 거쳐서 완성되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 이라고 생각한다.

2. 목회자윤리에 대한 문제 인식

우리나라 선교초기에는 목회자는 시대의 선각자요, 사회의 지도자요, 신교육을 받은 고결한 인격자로 여겼으나 오늘에 와서는 한국교회의 개혁 대상자의 제1순위로 목회자가 지목을 받고 있다. 물론 훌륭한 덕목을 지니고 소신껏 예수님의 목자상에 맞게 성심을 다해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점차적으로 선구자적 위치와 그 권위가 상실되어 신자와 비신자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교회의 권위 부재와 교회생활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교회와 사회는 대화가 점점 단절되어 가고 각 교회는 외형적 성장만을 중시하는 개교회주의가 되어가고 있다.

질 수 있었음도 인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의 문제점 때문에 한국교회의 신뢰가 상실되고,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물론, 한국교회의 문제의 핵심에는 일반 성도들의 문제도 존재한다.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계급의식과 외식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신앙인을 만드는 데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접근하려면, 목회자들의 문제점을 먼저 분석하고

올바로 세우는 일을 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교회 문제의 핵심인 목회자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열하고자 한다.

- 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삶으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
- ② 율법과 사랑의 실천을 경시하고, 성장주의 등의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로 왜곡된 신앙을 가르쳤다
- ③ 교회를 분열시키고, 직책을 계급화 하였으며, 교회를 사유화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회자가 주인노릇하려고 하였다.
- ④ 불의한 정권에 굴복하고, 집단이기주의적 사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 ⑤ 비민주적이며, 권위적이고 독재적이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등 개혁적 마인드가 부족했다.
- ⑥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의 양적성장으로 치부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의 수를 늘리는 일에 전념하였고, 신앙의 질적인 성장이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하였다.²⁾
- ⑦ 목회자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물질적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였다.³⁾
- ⑧ 교인들을 토속적인 종교심에 호소하여 기복신앙을 체질화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 물질을 드려야 하도록 권유하여 물량적으로 팽창하는 교회로 성장시킴으로서 신앙을 왜곡시켰다.
- ⑨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교회의 경영자

- 2) 양적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의 부정적 요인을 몇 가지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회의 양적성장을 강조할 때 모이는 교회에 교회의 관심을 집중시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정착시킬 수 있다. 나. 교회의 양적성장은 교회의 시각을 자기가 속한 교회에 모으게 하여 자기 교회 하나밖에 볼 수 없도록 한다. 다. 교회의 양적성장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전인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교회성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보게 될 뿐이다. 라. 교회성장을 교인들의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를 탈사회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물량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는 것이며,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양 아흔 아홉 마리를 세는 일 보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한 마리의 양에 더 많이 쏠려 있다. 이렇듯 목회의 성공 여부를 물량의 개념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 3) 한경철, 한국교회 내일의 과제,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3), p.180. 물질주의적이고 물량주의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세적 축복이나 기복을 더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그것에 오용하는데, 이때 그러한 것들이 가져오는 피해는 막심하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물질주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까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 하겠다. 교회의 성공척도, 교인의 신앙척도를 물질적 용어로 설명하려는 태도는 교회의 기업화, 신앙의 도구화라는 비 본래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배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교회마저도 외적으로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해져 가지만 내면적인 열정과 내실은 빈곤을 더해 가고 있다. 나아가 목회자가 물질의 풍요에 감염되어 귀족화 현상을 띠고 이것을 당연시 하거나 그렇지 못한 교회나 목회자를 낮게 평가한다면, 그는 이미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로 전략하였으며, 영적인 모범이 되지 못하여 교인들의 영적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력을 상실하였다.⁴⁾

⑩ 목회자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일상적 삶에 안주하는 직업적인 매너리즘 문제⁵⁾에 당면하고 있다.

⑪ 개인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교회와 사회의 올바른 변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상실하여, 기독교인들이 가진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⁶⁾

⑫ 다른 교회의 목회자를 비난하고, 타 교회의 교인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고있으며, 목사안수 과정과 노회, 총회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⁷⁾

⑬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얻고 남에게 보이려고 가짜 박사학위를 자랑하며, 자리싸움에 연연하여 어디에서나 서로 먼저 높아지고 자 하는 비성서적 행위를 하고 있다.

⑭ 교회의 여자 신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교회 직원이나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고도 목회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⑮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행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본인은 성경적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설교에서만 거룩성을 강조하여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⁸⁾

⑯ 목회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치외법권적 위치를 점유하려는 행위를 목사의 권위라고 생각한다. (국방, 세금, 투표 참여 등)

⑰ 교회의 인사를 불공평하게 하며, 임직자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고, 재정을 목적이외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중앙집권적 권력을 행사한다.

⑱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여 대형화 하면서,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려고 하고, 반대에 부딪치면 교차세습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등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4) 한국교회는 지도자의 빈곤이 문제시 된다. 틀에 얽매인 지도자의 의식구조와 방법과 스타일의 문제이다. 급속히 변천해 가는 이 시대에 적응능력이 강한 복음적 지도자의 결여 때문에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교회 목회자는 그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이는 목회자가 변하는 사회에 대하여 능동적인 자세가 아닌 수동적 입장에서 예배프로그램 진행에만 그쳐 버린다는 것이다. 즉 시간에 맞춘 형식적인 예배, 설교, 심방, 구역예배등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 하여야 한다.

6)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평가 절하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전을 상실하고 있다.

7) 오늘날 목회 동역자간의 윤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와 관계문제, 전임목사와 후임목사와의 윤리문제, 이웃 동역자 와의 윤리문제 등이다.

8) 데이빗 필드저,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 정병길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1990),p.29, 법률가나 의사나 상담가등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이 신뢰성이다. 목회의 일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목회자의 중요한 윤리적 자질 중의 하나는 목회자의 정직함에 바탕을 둔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없는 목회자는 성직을 수행하는 데 많은 난관을 갖게 된다.

⑲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외형적인 모습과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⑳ 교인들의 임직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으며, 교인들을 심방하거나 개인적 의식에 참석하여 별도의 사례를 받으며, 목사 안수식에서 거마비를 받는 등의 비상식적 행위가 관례화되어 있다.

㉑ 부유한 교인과 가난한 교인을 차별대우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기도 보다는 가진 자를 위한 기도를 우선시 하고 있다.

이상에서 목회자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목회자가 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가 이 가운데 몇 가지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윤리적 판단의 준거가 될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목회자 윤리강령의 필요성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성직자이다. 이러한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 보다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성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는 삶 자체가 높은 도덕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윤리적 삶을 살아가도록 설교하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있어서, 윤리강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문제에서 갈등하게 되고, 모든 목회자들이 같은 목적과 기준으로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의 현재 상황은 위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이며, 도덕적 해이가 난무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적 요소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윤리강령 그 자체가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윤리적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목회자는 구별된 전문인으로서, 윤리강령을 가질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9) Trull, Joe E. and Carter, James E. Ministerial ethics, Baker Academic:Michigan, 2004, 189-190에서 전문인들의 윤리강령제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은 대부분 나름대로의 전문인 윤리강령(professional code) 제정하여 직업의 윤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 전문인들이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목적은, 첫째로, 동료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가능한 실수를 예방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로, 능력이 부족한 전문가들이 전문직의 수준과 질적인 하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저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돌팔이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윤리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개인의 윤리적 행위를 하는 준거를 제시하여 부당한 요구나 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넷째는, 전문직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인들의 자

1) 목회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그 준거가 될 윤리적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2) 목회자들이 일반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여 목회자들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정의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3) 윤리강령은 소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목회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깊이 성찰하여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한다. 목회자들은 수시로 죄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자신의 윤리적 경계가 어떠한가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윤리적인 목회자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윤리강령은 단순히 행동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전문 직업의 도덕적 강조점을 보여 줌으로서 목회자의 삶의 윤리적 모형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명문화된 윤리강령이 실제 윤리의식과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자유주의 목회자들은 강력한 윤리강령의 의무론적(deontological) 성향이 법률주의적 논리로 귀결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¹⁰⁾ 즉, 실제적인 윤리성이 결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윤리강령이 그들의 목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목회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려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리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의사나 교수, 법조인, 공무원, 생명공학연구자 모임, 간호사 등이나 대부분의 전문인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므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의 문제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1) 윤리 강령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목회자인가, 신자들이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제3의 조직이나 집단이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누가 만드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리규정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모된 이익을 추구하도록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 당해

부심을 갖게 한다고 전문인들의 윤리강령제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10) 상계서, p.187

자 뿐만 아니라 제3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2) 누가 이런 윤리 강령을 교육하고 이를 내재화(internalize) 시키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료 목회자들이 하는 경우, 모범적인 사람이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지며, 또 다른 권위와 강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외부 조직이나 전문가들이 이를 맡았을 때에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존심으로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다.

3) 어떤 주제를 포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규칙적인 것과 원리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조직차원의 내용 등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4) 목회자는 일반 신자들 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목회자는 일반 신자들과 같은 도덕적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목회자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수준의 요구는 자칫하면 엘리트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으며, 실천의 가능성이 희박해져서 문서주의가 될 수도 있다.

5)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상황적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내면적 성실성과 통합적 관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또한, 윤리 강령에는 사회적 정의와 자유에 대한 함축적 의미나 목회자의 다양한 역할을 다 포함하기 어렵다.

6)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어떻게 실천되는 것을 평가하고 강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윤리 강령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실천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조직이나 평가의 방법이 문제가 되므로, 강령은 있어도 윤리는 없는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신학교에서나 목회자 안수시에 이를 교육하고 내면화 시키는 노력이 주어진다면, 윤리강령이 없이 개인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 윤리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목회자 윤리강령의 준거

참된 기독교는 사상(Denken)과 삶(Worning)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학과 신앙이 삶 가운데서 윤리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므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목사의 윤리의식을 의심케 한다.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모함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나의 만족과 기쁨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금기된 사항이다. 이런 도덕 불감증은 인격 파탄에서 오고 그것은 다시 성적 타락마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특별히 부도덕이나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신사적 언어

와 행동은 성직자로서의 윤리기준에는 어긋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받아들이는 이상 교회개혁의 구체적 과제는 목회자의 윤리 회복이 급선무이다. 종교개혁자들의 과제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신학과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은 바른 생활로 열매를 맺었다. 한편 중세의 암흑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윤리적 타락을 가져왔다. 목회자의 신앙의 원리가 잘못되었으면 윤리적 기준도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목회자의 윤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 윤리이며 성경적 윤리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개혁주의 목회자로 자부한다면 당연히 개혁주의 윤리 터 위에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목회자의 윤리적 기준이 개혁주의 윤리의 틀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목양현장에서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열매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II. 윤리강령의 사례분석

1. 전문가 윤리 강령

여기서는, 전문가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강령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 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을 다시 강화하여 잃어버린 공동의 가치를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전문가들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직업윤리가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혼탁해 질 것이고, 사회의 가치는 돈과 명예,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얻기 위해 동기가 발동하게 되지만, 그런 자기 이익외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에게 특별히 윤리강령이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지니고 있는 전문지식과 정보가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해서 정보의 불일치(information asymmetry)로 인해, 전문인들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위의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최초의 윤리강령은 B.C.2250년 석기등에 기록된 의사윤리 강령이다¹¹⁾. 기

11) Trull & Carter, 상계서, p. 191

원전의 이러한 의사의 강령이 존재했던 것은 의사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 더 윤리의식이 필요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B.C. 350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전문 첨부물 참조)는 마술과 의술을 구분하여 의사의 선서를 말하고 있다. 또한, A.D. 12세기에 이집트 의사인 Maimonides가 돈이 없어도 배풀어야 할 의술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공무원들의 윤리강령, 변호사나 법조인들의 윤리강령 등이 있어 왔으며, 목회자의 윤리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1926년에서 1944년까지 일부 교단에서 시행된 목회자 윤리강령이 있었고 최근에 그리스도 제자들 교단(Disciples of Christ)와 세계유일교단(Unitarian Universalist)들이 시행하는 윤리강령이 있다. 한국에서는 감리교단이 최근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공표한 바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제정한 윤리강령이다.

가. 전문가 윤리강령의 특성

전문가 윤리강령의 형태는 규약, 계약, 또는 서약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규약의 형태는 하여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하여 그 전문직업인과 수요자, 그리고 일반 공공의 윤리적 관심을 균형 있게 명시한다. 계약의 형태는 서로의 요구를 기록하고, 보상과 처벌의 한계를 명시하기도 한다. 서약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같이 자신이 대중과 피 수혜자에게 약속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결의를 보여준다.

나. 전문가 윤리강령의 구조

윤리강령은 구조가 다양하지만, 중요한 구성요소는, 1)개인적인 의무사항, 2) 수혜자와 특별한 이익집단에 대한 책임, 3) 동료들과 그 전문 직업 자체에 대한 의무사항, 4) 그 공동체와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전문가 윤리강령의 실천적 과제

윤리 강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하여 놓으면, 이를 어겼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므로,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명시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된 윤리강령을 단순히 배포하기 보다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무대학원, 신학대학원 등 전문인 교육학교(professional school)에서 심도 있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윤리강령 실천 위원회 같은 통제부서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위원들은 내부 사람들 뿐 아니라 외부인이나 피수혜자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객관적 평가를 위해 바람직하다.

또한,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동료들이 의지를 가지고 통제해야 하며, 공공에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도록 해야 한다.(경고, 정지, 파면 등)

2. 목회 윤리 강령 비교

이제 교계에서는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일이 자신들의 교단의 신뢰성을 높이고 목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먼저 국내외 몇 가지의 윤리강령과 관계된 내용을 소개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가. 미국의 초기 교파 윤리강령 (첨부를 참조)

이 강령들은 1920년대에서 40년대 제정된 것으로 매우 간결하게 되어 있다.

1) 회중교회 강령

이 강령은 목회자 개인과 그의 업무와 관련된 장과, 그의 교회와의 관계, 전문적 직업성과 관련된 장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되었다. 개인과 그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시간관리, 지적, 영성적 능력 개발, 건강관리, 진실성, 표절문제, 금전관리, 결혼문제 등을 다루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주요내용은, 계약의 준수, 적절한 봉급, 다른 직업이나 수익성 일, 비밀 준수, 공정성, 지역사회 역할 등을 다루었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목회자의 일에 대한 간섭배제, 타 교회교인관계, 부임 문제, 타 목회자 비난, 협력과 솔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장로교와 감리교의 목회윤리 강령은 앞에서 본, 회중교회 윤리강령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되 감리교는 구분을 없애고 서술식으로 연결하였고 장로교의 강령은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유일교단(Unitarian) 교파의 윤리강령은,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사용하였는데, 목회자와 그의 업무, 목회자와 교회 관리자, 목회자와 교인들, 목회자와 동료목회자의 관계, 목회자와 지역사회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은 표현이 조금 더 설명적일 뿐 회중교회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몇 가지 특이하게 첨가된 항목이 있는데, 강단에 초청되는 인사에 대한 한계와 목회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것, 세례식과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집례하고 비용을 받지 말 것, 주례를 거절할 수 있음, 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첨가되었다.

나. 현대 교파의 윤리강령

1) 제자강령(The Disciples Code)

이 강령은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보다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윤리강령을 시작할 때 선서문 형식의 글을 첨부하였다. 이 강령은 6개의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행동관련, 교회관련 항목, 동료 목회자 관련 항목, 지역사회 관련 항목, 교파와 관련된 항목, 세계적인 교회에 관련된 항목 등이다.

개인적 행동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자신의 개발을 위해 성경읽기, 묵상하기, 기도를 강조하였으며,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서적 적절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빚지지 않을 것과 독서를 하고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전문제에 정직할 것과 표절하지 않을 것, 인종차별이나 계층이나 신념의 차이 등의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여, 현대적인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회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시간과 정열의 전념을 다하고, 설교 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사랑으로 선포하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교회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례를 받지 말 것과 모든 가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것,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것, 말고 있는 교회를 성결하게 노력함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 구성원에게도 기독교인의 태도로 대할 것, 교인에 관한 비밀 준수, 어떤 상황 하에서 교회를 사임하면서도 교회의 단합을 해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갖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강단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동료 목회자와 그 가족들을 모든 면에서도 도와주고 사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전임자나 후임자의 업적에 관해 비난하지 않고, 전임지에 결혼식이나 장례절차 등에 현직 목회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방문할 것이다. 전임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여 현직 목회자를 곤란하게 하지 않고, 전임자나 은퇴자에게 예의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은퇴한 후에 현직 목회자를 지성을 다해 지원하며, 다른 목회자를 비난하지 않고, 다른 목회자가 어떤 규모에서나, 어떤 분야의 목회현장에서 이루는 일을 존중한다. 다른 동료들의 일이 나와 달라도 그들의 신앙의 신실성을 존중할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이념을 낮추지 않을 것이며, 장례식과 결혼식을 지나치게 마구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을 중요치 않은 일로 허비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역사회에서 나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인식 시키되, 이로 인해 그 지역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나의 교파와의 관계에서는, 나의 교회와 나의 교육, 나의 목회를 가능하게 한 상호관계를 존중하여 나의 교파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세계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세계교회의 부분임을 인식하여, 세계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능하면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현대적인 목회자 윤리강령은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 목회현장에

서의 갈등적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2) 세계유일교단목회자 협의회(Unitarian Universalist Minister Association)에서 1987년에서 1988년에 제정한 윤리강령

이 강령에서는 목적을 먼저 서술하고, 자기 자신, 동료, 교회, 교단,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영적인 성장, 윤리적 신실성,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신의 목회를 더 깊게 할 것과, 정직성, 목회를 비하하거나 교회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목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며, 어린이나 원하지 않는 성인 등 어떤 교회의 일원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족들에 대해 나의 의무와 그들의 권리와 요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동료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상호 협조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며, 상호 신뢰를 하고, 윤리강령을 위반할 시에는 그들에게 솔직히 조언하며, 필요할 시에는 그런 사실을 UUMA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다. 다른 동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교회나 그 지역에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사전에 그 교회 동료 목회자에게 알릴 것이다. 또한 다른 교회 목회자의 동의 없이 그 교회에 나의 목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동역자와 사역할 때는 명백하게 권한과 책임, 책무와 의사소통의 통로를 규정할 것이며, 서로 협조적인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역할의 변화는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재조정 할 것이다. 같은 교단에 속해 있을 때, 동료 목회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관대하게 할 것이며, UUMA의 모든 일에 협조적이고, 모임에 참석하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노력할 것이다. (교단에 충성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의 정책에 협조하고 지지할 것이며, 규정된 모임만을 소집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역사와 정책의 의미 등을 설명하여 자유롭고 협조적인 신앙생활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더 발전시킬 것이며, 교인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존중하고 도움을 줄 것이다. 교인의 개인적 비밀을 보장하고, 목회자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신뢰성을 이용하여 나의 만족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인들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욕구를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부인이거나 결혼 할 상대가 아니면(혼전성관계를 묵시적으로 용인) 교회의 어떤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혼전인 경우는 교인 중 누구와 성관계를 가지려 할 때는 나와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것이다. 강단에는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도 개방하는 자유 함을 가질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포용적이고 충성스러우며, 관대하고 비판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교역자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 책무, 의사소통의 채널을 명백히 하며,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것이다. 안식년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는 충분한 시간 전에 통보하여 후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을 때는 즉시 교회의 위원회(당회)에 통보 할 것이다.

교단과 관계에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Unitarian Universalist의 전

통과 관계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교단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교단의 재정을 지원하며, UUA의 회원이 되는 절차를 준수하고 교회에 지원을 할 때는 심사숙고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Unitarian Universalist의 대표로서 더 큰 지역사회에 그 전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행동하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지도자로서 예언자적 목회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인들이 동참하도록 하며, 다른 교회의 목회자를 도우는 일을 할 것이다.

3. 미국 교단 윤리강령의 실례

이것은 Trull 과 Carter가 제시한 모든 목회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명기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머리말: 선서 형식

나. 자신에 대한 책임

- 1)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위한 노력
- 2) 기도와 성경읽기, 묵상의 시간으로 성숙
- 3) 연구, 독서, 컨퍼런스 참석 등으로 지적성장
- 4) 개인, 가족과의 관계, 교회의 일등에 적절한 시간배분과 휴식과 년가 등 사용
- 5) 모든 빚을 제때 갚고,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헌금을 하며,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재정적으로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한다.
- 6) 나의 언사를 신뢰성 있게 하여, 남을 험담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개인적 경험을 오용하지 않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 7)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종교, 교회나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언행을 그리스도 같이 한다.

다. 가족에 대한 책임

- 1) 가족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시간을 주고 사랑을 주며 관심을 갖는다.
- 2) 가족들이 먼저 가정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부인(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하며,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협력자 역할은 차선임을 이해한다.
- 3)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물임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도록 한다

라. 교회에서의 책임

- 1)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믿음과 사랑, 지혜, 용기, 신실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한다.
- 2) 나는 적절한 업무 습관과 일과 가운데, 목회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설교자로서, 행정관리자로서 나의 시간과 정열을 신실하게 사용한다
- 3)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목회적 의무를 공정하게 한다
- 4) 기도로 설교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간을 사용하여, 성경에 근거를 두고,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 5) 상담을 함에 있어서 비밀을 보장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전도자로서 사람들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며 교인이 되게 하는데 있어서, 다른 교회 일원을 교회를 바꾸게 하거나, 타 종교를 비하하여 개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심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 혼자가지 않으며, 가까이에 교회 일원이 함께 있도록 한다.
- 8) 교회 일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비용을 받지 않으며,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목회시간이나, 시간적 제약이나, 신학적 신조위에 나의 정책을 수립한다.
- 9) 전임 교역자로서, 교회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다른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10) 교회를 떠날 때는 적절한 시기에, 확실한 의사표현과 적절한 임무 마감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한다.

마. 동료들에 대해서

- 1) 모든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되, 특히 같은 교회에서 동역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 2) 나의 동료 목회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개인적인 도움도 주도록 한다.
- 3)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나, 통계수치상의 성공을 위해 동료 목회자와 경쟁하지 않는다.
- 4) 다른 동료 특히, 나의 전임자나 후임자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5)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섭하지 않는다.
- 6) 시무하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현직 목회자의 초청 하에 결혼이나 장례 등의 예식에만 참석한다.
- 7) 전직 목회자가 나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우한다.
- 8) 은퇴한 목회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내가 은퇴하고 난 후에 나의 교회 목회자를 사랑으로 지원한다.

- 9) 다른 목회자를 어떤 직책에 추천을 할 때는 정직하고 친절하게 한다.
- 10) 만일 특정한 목회자의 잘못된 행위를 인지하면, 그 교단의 책임자에게 알린다.

바. 공동체에 대한 책임

- 1) 나의 주 임무는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다른 지역의 일을 하느라 목회자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 2) 공공목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3) 예언자적 증언과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의 도덕성을 높이도록 협력한다.
- 4)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정부의 법을 준수한다.
- 5) 비윤리적이고, 비성서적이며, 현명하지 않은 정당정치나 정치적 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시민권을 행사한다.

사. 교단에 대한 책임

- 1) 내가 속한 교단이 나의 삶과 교회와 목회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교단의 모든 일에 협조하고 지원한다.
- 2)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아. 부목사의 윤리강령(교육/ 음악/ 청소년 등)

- 1) 나의 담임목회자를 지원하고 충성하되,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옮긴다.
- 2) 나의 동료 목회자를 지원하고 충실히 하되, 그들을 비판하고나 비난하지 않는다.
- 3) 교회에서 나의 역할과 동료 직원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교회의 다른 목회자들과 경쟁하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 4) 나의 특별한 분야의 다른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5) 결혼 전인 경우에 특히 그 교회의 교인과 데이트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한다.

자. 목회적 상담윤리

- 1) 내가 상담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상담자를 갖는다.
- 2) 나의 욕망과 취약성을 인지하고 상담자를 통하여 나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3) 피상당자에 대한 나의 권위로서, 조작하거나 군림하여 그들의 취약성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4) 피상당자에게 성적으로나 낭만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5) 피상당자의 기준이나, 신념, 행위와 관계없이 모든 피상당자에게 조건 없이 수용하고 사랑함을 보인다.

6) 내가 피상당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에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여 준다.

7) 동료 전문 상담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

8) 상담시 얻은 모든 사항을 비밀을 지키되, 그 내용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9) 동료 목회자와 그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나의 도움을 제공한다.

10) 나의 교회에서 개인적 상담과, 세미나, 강의, 워크숍, 그룹 모임 등을 통하여 나의 목회를 제공한다.

11) 나의 교회의 정책과 신조를 찬성하지만, 이를 어떤 상담자에게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4.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2006년 10월 27일)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실한 채 물질주의와 도덕적 퇴폐가 만연한 이때에, 이를 영적이며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실로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과 목회 사역에 있어서 온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 깊이 자문하게 된다. 예수님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마 10:9)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청빈하고 겸소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님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달리 “섬기는 자”(막 10: 43)가 되라고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지 깊이 반성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주의 종으로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룩한 요청 앞에서 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양 무리의 본이 될 것”(벧전 5:3)을 엄숙히 다짐하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확신 한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 하였다. 이는 우리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높은 윤리적 삶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요청을 우리의 삶과 목회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감리회 목회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 강령”을 선언한다.

가. 우리는 목회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

- 1)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각성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심한다.
- 2)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펴 나태와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하며 결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딤후 6:5).
- 3) 우리는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며,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나.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한다.

- 1)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과 신뢰로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2)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선포하며,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하지 않는다.
- 3) 우리는 교인들과의 상담에서 얻은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성 윤리와 경제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다.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 먼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한다.

- 1) 우리는 양가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한다.
- 2) 우리는 목회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힘쓴다.
- 3) 우리는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 신성하고 순결한 것임을 믿으며 이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한다.

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신실하게 섬긴다.

- 1) 우리는 [교리와 장정]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2) 우리는 감리교회의 각종 선거에 있어서 학연, 지연, 파벌을 초월하고 금권 선거를

일체 배격한다.

- 3) 우리는 통계표를 정확하게 작성 보고하고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 4) 우리는 감리교회 안에서의 성직매매, 비윤리적 후임자 선정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우리 감리교회가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마. 우리는 같은 소명을 받은 동역자로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동료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한다.

- 1) 우리는 남녀노소, 인종, 학력, 교회규모 등에 따라 동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선후배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을 적극 돕는다.
- 3) 우리는 동료의 사생활과 개인적 권익을 존중하며 동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지 않는다.

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청렴하고 검약한 삶을 살아 교회의 덕이 되도록 노력한다.

- 1) 우리는 교회재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용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 2) 우리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신중하고 개인적으로는 채무를 지지 않으며 공적인 채무는 신속하게 변제한다.
- 3) 우리는 금주, 금연 등 절제운동에 앞장서며 인터넷 악용, 투기적 오락과 불건전한 운동 등을 배척한다.
- 4)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의복, 식사, 주택, 자동차, 사례비 등을 자제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에 앞장선다.

사.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요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헌신한다.

- 1) 우리는 국가의 올바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부정부패를 퇴치하는 일에 앞장선다.
- 2) 우리는 정직한 언행을 생활화하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풍조를 추방하는 일에 앞장선다.
- 3) 우리는 음란, 퇴폐, 사치풍조 등을 추방하는 모든 건전한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 4) 우리는 오늘의 극도로 양극화된 현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태환경이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힘쓴다.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 일동은 위와 같은 목회자 윤리강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할 것이며 만약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리교회의 장정에 따라 어떠한 규제나 견책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5. 그 외의 윤리선언

바른 목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윤리선언¹²⁾이 있으며,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1993년 6월 14일)에서도 발표하였다(첨부물 참조). 전국기독교노조 목회자 윤리 강령¹³⁾과 평신도 모임이라는 단체 명의로 발표된 윤리선언이 있었으나 실천되지 못하였고, 교회나 교단의 지지를 받지 못한 내용으로 머무르고 말았다.

6. 성경을 근거로 한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내용

신약성경에는 목회자의 자격 요건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하여 2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는 아주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배경으로 한국교회는 새로운 윤리 회복의 장이 열릴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제시한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7가지 단원으로 체계 있게 묶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와 사명에 대하여,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덕목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디도서
1	절제	3 : 2	1 : 8
2	나그네 대접함	3 : 2	1 : 8
3	가르치기 잘함	5 : 17	1 : 9
4	몬유함	3 : 3	1 : 8
5	다투지 아니함	3 : 3	1 : 7
6	돈을 사랑치 아니함	3 : 3	
7	새로 입교한 자 아님	3 : 6	
8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3 : 7	
9	고집대로 하지 않음		1 : 7

12) 바른 목회연구원, “목회교육” 제12호 1998, 봄(바른목회연구원, 1998) p.249.

13) 2004/9/25(토) 성민종합사회복지관(<http://www.snmw.or.kr>) 자유게시판에 조합원의 이름으로 남긴 글인데 이런 종류의 글을 동일인의 이름으로 여러 기독교 기관에 남겼다. 전국기독교노조는 위원장이 사용자가 됨으로 자격이 자동 실격됨으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

10	급히 분내지 않음		1 : 7
11	선을 좋아함		1 : 8
12	의로우며 거룩함		1 : 8
13	근심함	3 : 2	1 : 8
14	책망할 것이 없음	3 : 2, 8	1 : 6, 7
15	한 명의 처만 거느림	3 : 2, 12	1 : 6
16	아담함	3 : 2, 8	1 : 7
17	존경받음	3 : 2	
18	술 취하지 않음	3 : 3, 8	1 : 7
19	자기 집을 잘 다스림	3 : 4, 12	
20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함	3 : 4, 12	1 : 6
21	더러운 이를 취하지 않음	3 : 8	1 : 7
22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킴	3 : 9	1 : 9

7. 존 웨슬리의 경건생활을 위한 자기 성찰 (첨부물 참조)

존 웨슬리는 경건한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성찰을 위한 점검문을 만들고 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았다. 요일별로 주요 관점을 정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많은 분야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못하고 매일 출근하는 쉐러리맨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내용은 윤리 강령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의 삶을 성찰하는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III. 목회자 윤리 제정의 고려사항

1. 목회자 윤리강령의 목적

목회자 윤리강령의 일반적 목적은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료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에게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진다.

1) 목회의 가치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모든 동료 목회자들이 공통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첫째, 개인적인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에 대해서와 근무태도와 조건 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는, 동료와 총회, 그리고 사회에 대한 목회자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명시한다. 셋째, 이 가이드라인은 목회자의 모범적 기준을 제공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행동을 스스로 취하도록

한다.

2) 두 번째 목적은 개인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신자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적, 영성적, 정신적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3) 윤리강령은 개인적인 목회자를 지원하기도 하며, 보호하기도 한다.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4) 윤리강령은 목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적 필요사항을 명기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목회자 윤리강령은 목회자의 필요한 덕목과 가치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목회자상을 나타낸다.

2. 목회자 윤리강령의 구조

우리나라의 목회자 윤리강령이 제정 시행되는 곳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미국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¹⁴⁾ 목회자의 윤리강령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구조로는 1) 매우 구체적인 규범과 일반적인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으며, 2)비밀보호와 신뢰성, 책임성, 성실성, 목회자의 역할, 등의 다양한 개인 능력과 품성을 포함하고 있고, 3) 성적 유혹과 불평등하게 일을 처리할 가능성 등의 윤리적인 실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4) 대부분의 강령은 목회자 자신과 가족, 회중, 동료, 그리고 사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목회자 윤리강령이 활발히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윤리강령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항을 구성하고자 한다.

3. 목회자 윤리강령의 시행 문제

목회자 윤리강령은 지켜지기 위해서는 위반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과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위반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간에 이의 시행을 위한 감시 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외부의 동료 목회자들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부정적 시각에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긍정적 동기부여를 위하여, 모범적인 강령의 실천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절차도 같이 수립되는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4. 윤리강령 제정의 방법

가. 윤리강령의 제정자

14) Trull and Carter, 전제서, pp.201-203

윤리규정이 만일 목회자들만이 참여하여 제정이 되는 경우는 자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일관될 수 가 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강령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제정된 윤리강령을 목회자 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도 알려서, 목회자의 윤리적 기준을 인지하여 목회자의 윤리적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고, 목회자가 보다 더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나. 제정 절차

윤리강령은 먼저, 적절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과거와 현재의 윤리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더 수집하여 보완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모든 위원들에게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완성한 후에 전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배포하여 시행한다.

이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열하여 상호 검토함으로서 공통의 요소들을 발굴하고 기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미 발제되고 토론된 교과 진행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 포함될 내용

목회자 윤리강령은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내용이 첨가 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윤리강령을 만드는 것은 어려우며,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윤리강령의 기준은 도달 할 수 있다기 보다는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에,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윤리 없는 윤리강령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수준으로 목표로 삼는가 하는 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에, 여러 사람의 증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느끼는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들의 직책상 매우 다양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특히,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윤리강령은 교단의 특성을 위한 요구를 배제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미국의 목회자 윤리강령과 한국의 감리교 윤리강령 등을 참고로 하여 몇 가지 사항을 첨부하고자 한다.¹⁵⁾

IV. 목회자 윤리 강령(안)의 세부 목차와 내용

위의 사례분석과 주요내용을 근거로 하여 세부 목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강령의 주요목차

가. 목회자 선서: 머리말

- * 목회자의 소명 / 윤리강령의 준거 / 윤리강령의 준수 서약

나. 개인 생활 윤리

1) 목회자의 영성

- * 말씀중심, 믿음의 확신, 은혜의 체험
- * 기도생활/묵상/ 절제된 생활
- * 예수님을 닮은 삶

2) 개인 인성 및 능력 관리

- * 신실성/ 모범적 삶/ 사랑의 실천 /돌보고 베푸는 삶
- * 지적능력/ 신학적 능력/ 건강/ 독서/ 사회변화와 문제의 인식

3) 금전관리

- * 생활수준
- * 봉급과 사례비/ 세금
- * 기타 소득과 수익성 사업

4) 시간관리

15)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목회자의 소명과 목회전문가의 양면성

나) 목회자 개인윤리:

- 가정, 성, 그리고 건강
- 지적 성장과 영성
- 금전사용과 시간관리
- 다른 목회자들과의 관계

다) 목양윤리

- 설교
- 심방과 상담
- 의사결정과 행정
- 결혼예식과 장례예식의 집례와 경조사
- 교회성장을 위한 양적선교
- 사회성장을 위한 질적 선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목회자 윤리강령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정리 해 본다.

- * 근무시간
- * 목양중심의 관리
- * 수도의 시간 확보

다. 가정관리

- * 가정에서의 역할
- * 상처 난 가정을 치료할 수 있는 자신의 준비
- * 부인과 자녀의 교회 내에서의 역할

라. 목양윤리:

- 1) 설교준비와 내용
 - * 준비와 내용/표절금지
 - * 설교의 독점과 관리
 - * 복음주의
- 2) 교인 신앙지도
 - * 개인 신앙에 대한 관심
 - * 개인의 특성을 이해/ 목회자 기준의 신앙 강요 지양
- 3) 전도와 교회성장관리
 - * 새 신자 관리
 - * 성장위주의 목회 지양
 - * 교회 리더십 승계문제
- 4) 교회 행정관리
 - * 인사관리
 - * 재정 관리
 - * 정보화
 - * 갈등관리
 - * 민주적 의사결정
- 5) 의식 집례
 - * 사전적 목회적 돌봄
 - * 각종의식 집례시 사례금
 - * 예배의 경건성
- 6) 대 교인 관리
 - * 평등한 대우
 - * 대 여성관계/성희롱/ 동성연애
 - * 어린이와 소외된 자들

- * 계급 조직의 관리
- * 개인 사생활 침해 지양
- 7) 국내외 선교 관리
 - * 생색내기 선교지원
 - * 상대국의 문화적 연구
 - * 국내 농어촌 선교지원 확대
 - * 선교지의 집중화 지양
- 8) 타 교회와의 관계
 - * 비난/ 뺏어오기/ 비교
 - * 협조/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여
- 9) 타 종교와의 관계
 - * 대화와 협력적 사회기여
 - * 배타적 행위
 - * 사랑으로 포용하고 선교대상화

라. 동료목회자와의 관계

- * 부목사와의 관계
- * 교단/동료 목회자와의 관계
- * 동료목회자 가족
- * 은퇴자/전임자/후임자

마. 목회적 상담윤리

- * 이성 상담시 역할 인식
- * 비밀 준수
- * 전문가 활용
- * 심방

바. 부목사의 윤리

- * 협력/비난
- *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교회이용 지양

사. 사회와의 관계 윤리

- 1) 사회봉사 및 참여
 - * 사랑의 실천
 - * 현금 이외의 구제현금 강요

- * 자발적 참여
- * 교회내외 소외계층 지원
- 2)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
 - * 복음의 실현을 위한 노력
 - * 비 성서적 행위에 대한 목소리
 - *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
- 3) 세계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관리
 - * 사회의 변화를 인식
 - *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

2. 목회자 윤리강령제안

이상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목회의 모형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서약문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형제자매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이다. 따라서 나는 성경적인 삶을 살며,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끊임없는 기도하고 묵상할 것이며, 절제된 삶으로서 교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 되고,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하고, 동료 목회자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본 윤리강령을 지키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선언 한다.

나. 목회자의 개인생활

- 1) 나는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깊은 기도생활, 말씀의 묵상, 찬양의 생활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나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건전한 목회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 3) 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며,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
- 4)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사회 문화적 변화의 흐름을 바로 이해하고 건전한 비판능력과 높은 수준의 교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폭넓은 독서를 하고 각종 정보의 습득을 위해 학술적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 5)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 6) 나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기여를 하기 위한 공공목회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사용한다.
- 7) 나는 봉급이외의 수입을 받는 어떤 직업이나 직책도 교회의 동의 없이 하지 않으며, 금전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다.
- 8) 나는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투기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9) 나는 교회 교인들의 중하위권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득이나 사례를 받지 않는다.
- 10) 나는 교회의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오락이나 휴식을 하지 않으며, 쉬는 날과 정기적인 휴가를 통하여 심신을 재충전한다.

다. 목회자의 가정생활

- 1) 나는 가정을 위하여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며, 부부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혼인의 순결성을 지키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여 모범적인 성도의 가정을 이루도록 한다.
- 2) 나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을 실천하고 노부모에게 효행과 예절을 다하여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
- 3) 나는 가족들에게 교회의 조역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기 이전에 가정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중요시 하게 생각하며, 가족들의 교회활동에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라. 목회자의 목회사역 윤리

- 1) 나는 설교준비를 성실히 하기위해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며, 많은 독서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준비하되, 남의 설교를 표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근거를 두고 설교한다.
- 2) 나는 사적인 감정이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며, 설교를 독점하여 동일한 설교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동역자들에게도 설교를 위임한다.
- 3) 나는 이단종파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4) 나는 교우들을 대하거나 교회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빈부, 지위의 고하, 지역, 성별에 따른 편애나 편견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
- 5) 나는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개인의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명목적인 순종과 나의 신앙기준을 강요하지 않는다.

6) 나는 동료 교역자 이웃 교회 타 종교인에 대하여 예의와 상식을 지키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교세확장을 꾀하지 않으며 건축, 조세 등에 있어서 실정법에 어긋나거나 지역사회에 지탄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나는 통계적인 수치와 교세 확장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영혼의 돌봄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목회를 지향한다.

8)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후계자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세습을 하지 아니한다.

9) 나는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살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직분을 계급화 하지 않으며,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백히 한다.

10) 나는 교회 노회 총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함에 있어서 탈법적이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명예와 지위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며 교권을 남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11) 나는 교회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이 되도록 한다.

12) 나는 교회의 행정을 정보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며, 상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운영을 한다.

13) 나는 교회내의 갈등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편당과 분파를 초월하고 서로 연합하도록 노력한다.

14) 나는 모든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며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교인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자발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15)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의 결혼이나 장례식을 집례 한 후 별도의 사례금을 받지 아니하며, 타 교회 교인의 의식을 집례한 경우는 적절한 수준의 사례금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16) 나는 모든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목회적 돌봄을 반드시 하여, 형식적인 의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다.

17) 나는 교회 예배의 경건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벤트성의 예배의식을 지양한다.

18) 나는 여성(남성)이 혼자 있는 곳을 심방하거나,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동행하거나, 문을 개방하고,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도록 한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성적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19) 나는 결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 나의 목회와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한다. 결혼 전인 경우에는, 교회 신자와 결혼을 위한 만남을 가질 때, 신앙적 양심에 입각하여 상대가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 나는 어린이들이나 장애인 등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배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소중한 생명이며, 동등한 인권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교육한다.

- 21) 나는 교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지나친 교회 생활을 강요하여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22) 나는 생색내기식의 해외선교 지원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쟁적 선교를 지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적 사명으로 선교한다.
- 23) 나는 국내의 농어촌 지역과 미자립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한다.
- 24) 나는 해외선교시 선교지의 문화를 먼저 연구하여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적 충돌과 국제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한다.
- 25) 나는 타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인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탈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6) 나는 타 종교와 대화하며 사랑으로 포용하여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배타적이며 적대적 감정을 품지 않는다.
- 27) 나는 헌금을 강요하기 위하여 물질적 축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대우 하지 아니한다.
- 28) 나는 헌금을 축적하여 교회규모를 늘리거나 부동산을 획득하고 투기하지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제와 선교, 교육에 사용 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지향한다.

아.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

- 1) 나는 교회내의 다른 동료 목회자를 존중하며,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의사소통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 2) 나는 교회내의 동료 목회자와 직원들의 재정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하며, 그들의 가정을 돌보고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진로를 배려한다.
- 3) 나는 교회의 청빙에 응함에 있어서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경쟁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절차에 순응한다.
- 4) 나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숫자적으로 경쟁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외형적 규모로 목회자의 인품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 5) 나는 전임자나 후임자를 비난하지 아니하며, 은퇴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은퇴하였을 시에는 현직 목회자를 존중하고 협력한다.
- 6) 나는 동료 목회자가 윤리강령에 위배되거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면, 즉시 조언하고 당해 교단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 7) 나는 동료 목회자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가족을 위해 배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준다.

바. 목회자 상담윤리

1) 나는 목회 상담을 통해 취득한 개인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확실히 지키되, 그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해를 입거나 본인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들에게 알려서 피해를 예방한다.

2) 나는 이성과의 상담 시에 피상담자와 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피한다.

3) 나는 피상담자의 약점이나 문제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착취나 조작을 하여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4) 나는 피상담자의 문제에 전문성의 한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지 않아야 하며, 피상담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신앙적으로 적절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도움을 받도록 도와준다.

5) 나는 심방을 할 때, 혼자 가지 않으며, 별도의 사례비를 받거나 대접을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에 일정을 협의한다. 정기적인 대심방을 지양하여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심방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

사. 부목회자 윤리

1) 나는 부목회자로서 담임목회자에게 협력하며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2) 나는 부목회자로서 맡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맡은 영역을 넘어서 다른 목회자의 목회를 간섭하지 않도록 한다.

3) 나는 담임목사나 교회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삼가며, 편견을 가지고 교인을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4) 나는 임시직으로 생각하고 나의 개인적 목표를 위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편당을 만드는 비도덕적이며 비 신앙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아. 목회자의 사회관계 윤리

1) 나는 사회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과 윤리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지키고 기독교적 사회문화 건설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앞장서되 파당적이고 정략적인 정치활동에는 나서지 않는다.

2) 나는 교회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배려한다.

3) 나는 환경보전과 생태계보호를 위한 활동에 교회적 개인적으로 적극 동참하고 생명존중의 윤리회복, 생태친화적 생활방식의 확립과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 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정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인다.

V. 결론

종교개혁은 곧 교회개혁이며 교회의 개혁은 목회자들의 개혁에서 시작된다. 흔히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막연하게 교회가 물량주의로 갔다느니 교회가 세속주의와 타협한다느니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로 가고 있음을 통렬히 비난하면서도 마치 목회자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비켜서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문제는 바로 목회자 자신의 문제이며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윤리의식의 결여에서 나온다. 목회자의 윤리의식의 타락은 교회가 교회구실을 할 수 없도록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모든 목회자가 윤리적인 불감증자라거나 모든 목회자의 윤리가 실종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인기 있는 목회 성공 프로그램이라든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빠져들고 있는 목회 성장 교육 프로그램의 지침서들은 하나같이 교회 부흥이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이란 것은 다 알고 있다.

이윤 추구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목회에 도입하여 획기적이고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는 모든 목회자들을 현혹케 한다. 그리고 마케팅 이론이 교회 성장 이론에 깊숙이 들어옴으로 목회자의 의식 구조는 변했고 이것이 목회 윤리의 실종을 가져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목양의 현장에서도 교회 성장만 되면 비윤리적 비성경적인 것도 감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오늘의 문제를 마음 가운데 근심하면서 평신도들의 탈세, 부정부패에 관련된 것을 탄식하기 전에 모든 일차적인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소망을 주실 것이다.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분파로 사분오열 되어 있다. 서로의 권력을 행사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양적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빚어진 비기독교적인 현상이다.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운동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 신앙이라고 말 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회의 장로들이 되기 위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철면피성과 주일 교회에 서만 기독교인이 되는 평신도들의 이중성을 철저히 회개하여야만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교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장로윤리강령과 평신도 윤리강령도 제정하여 각성을 시켜야 한다. 이 논문은 개신교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윤리강령을 언급하였으나, 불교의 승려들과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를 포함한 모든 사제들과 성공회

의 사제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윤리강령이 연구되고 실천되는 것이 올바른 종교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길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맹용길, 2001, 목회 윤리, 서울: 장신대 출판부
- 이원규, 2003,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데이빗 필드저, 1990,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 정병길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 한경철, 1983, 한국교회 내일의 과제,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 Bakshantanskii, V.I. and Iu. V. Sogomonov, 2007, "Professional ethics: Sociological perspective, Sociological Research, 46(1), pp.75-95
- De La Torre, Miguel A., 2004, Doing Christian Ethics from the Margins, N.Y.: Orbis Book
- Gill, Robin (ed.), 2004, Christian Ethics, U.K.: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co, M. R., 1997, Ethical Dilemmas in Church Leadership, MI: Kregel Publication
- Trull, J. E. and Carter, J. E., 2004, Ministerial Ethics, Michigan: Baker Academic
- Kane, N Michael, 2006, Sexual misconduct, non-sexual touch, and dual relationship: risk for priests in the light of the code of pastoral conduct: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8(1): pp.105-110
- Kane, N. Michael, 2006, "New Standard for Pastoral Code," America, April, 10
- Sanders, Randolph K., 1997, Christian Counseling Ethics, IL: Intervarsity Press